

불교계, 민족문화수호 위해 쟁 걸음

기독교 10개 단체도 “보수단체 난동·불교 폄훼 우려” 한 목소리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구랍 25일, '조계종 교구신도회·신도단체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포교부장 계성 스님, 임정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이기홍 체육인불자회자가 행사에 앞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중신회, 민족문화수호 실천위원회 구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통문화 외면과 종교편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특별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구랍 25일 서울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조계종 교구신도회·신도단체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중앙신도회 실천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은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이 선임됐다. 또 중앙신도회장단 2명, 교구신도회 2명, 종단등록단체장 1명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구랍 13일 종단 차원에서 MB정권을 질타하며 전국 각 사찰에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총무행정 지침'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의 개별접촉 금지 및 사찰 출입 거부 △현수

막 게재 △구랍 22일 동지맞이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 동시 범교 △종단의 주요 방침 소식 공유를 전달한 바 있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종단 지침을 숙지하고 사찰 신도 및 구성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민족문화수호 실천의 일환으로 구랍 8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2011년 예산으로 인해 전역 삭감된 전통사찰 방재기금을 종단신도 및 일반 국민의 힘으로 확보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조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실천위원회는 종단의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신도등록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실천위원회는 올해 2월 중앙신도회 신년하례회 때 본격 창립되며, 사찰방재예산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 기자

청계광장서 1080배 올린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정부여당과 단절을 천명한 불교계가 1월 10일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정부와 여당, 국민의 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1080배를 봉행한다.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위원장 영담)는 “부처님 성도재일 전날인 10일 청계천 일대에서 1080배 정진을 시작으로 3월까지 전국 동시 규탄법회를 개최한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민족문화수호위는 성도재일인 11일에는 전국 3000여 본말사에서 민족문화수호와 생명살림을 위한 2차 동시 규탄법회를 봉행한다. 정월대보름인 2월 17일과 결사 108배 정진 회향일인 3월 23일에도 동시 규탄법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3차 정진에는 서울시 일대에서 3보 1배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법전 종정 “반드시 책임 물어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최근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에 힘을 실어 줬다. 또 총무원이 성찰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도 당부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구랍 27일 합천 해인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예방에서 '민족문화수호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통문화 가치를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대해 모든 종도들이 옳은 정진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법

전 스님에게 보고했다.

법전 스님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종정예경실은 “종정 예하에서 '깊은 물을 건널 때는 자신의 키부터 재야 한다'는 말씀으로 종단내부의 조직력을 성찰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도 함께 당부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월 6일 신년하례에서 내려질 법전 스님의 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재가연대 “조계종 자주선언 적극 환영”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조계종 자주선언이 종교 갈등 극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계종단이 국고보조금을 거부키로 한 결실을 환영한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재가연대는 조계종의 이번 자주선언을 국고 보조금이 자칫 시혜적 처원의 지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애국된 관행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평소 정교분리 원칙 강화를 주장해 온

재가연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현실 불교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종교 평화와 종교 다양성 정착을 위한 불교계와 사회 전반의 노력도 당부했다.

재가연대는 정교 분리와 종교 다양성 정착 강화를 위해 처치스테이와 종교교도소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보수단체 조계사 난동, 종교인 테러”

천정부 보수단체들이 구랍 22일 조계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가 순수한 신앙 행위를 침탈한 '종교인 테러'라며 참회를 촉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 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성서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 김종훈) 등 10개 기독교 단체는 29일 '사회 갈등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구랍 22일 조계

사 폭거는 단순히 어떤 단체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 종교인 전체를 향한 테러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일을 일삼은 단체는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속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에만 충실한 나머지 이웃종교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갖거나, 종교 행위 속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무분별하게 드러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일부 개신교도의 불교편향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전쟁은 안된다” 종교계 원로, 시민단체 대표 등 137명 호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대표들과 종교·시민사회 원로·대표들이 구랍 29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를 호소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하려면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무력 충돌 원인을 제거하려는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남북은 대화를 통해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절대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굳은 각오와 노력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소설가 황석영,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하창우 전 서울변협 회장 등 종교와 진보, 보수 시민단체, 여성 대표 137명이 서명했다. 불교계에서는 조



불교대표로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영담 스님(가운데)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발 3000은 실패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심재철 정책위장 등 한나라당 불교계 달래기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예산 확보 방안을 준비 중이며, 종교편향 논란이 없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구랍 28일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불교계가 저희(한나라당)들이 실수한 것을 잘못을 용서해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 불교계에서 제발 용서해주시면 겹쳐히

다가가 여러 말씀도 듣고 잘못된 것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템플스테이 예산은 기금에서 전용하든지 해서 당연히 증액시키겠다”며 “종교편향 논란이 없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일부 보수단체의 조계사 난동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한나라당은 불심 달래기에 부심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2011년 신묘년 한해에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선각종 전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선각종

종 정 영 담 대종사
총 무 원 장 정 암

원로원장 법경 종회의장 동명 총책연구실장 자공

<p>◆총 무 원</p> <p>총무부장 진목 기획부장 행진 교무부장 법인 재무부장 명일 사회부장 원주 문화예술부장 목언 조직부장 은광 감사부장 진하 규정부장 태승</p> <p>기획국장 해현 교무국장 형진 재무국장 선지 사회국장 해인 문화예술국장 선주 조직국장 진오 감사국장 선정 규정국장 서진</p>	<p>◆교 육 원</p> <p>교육원장 해명 연수부장 법해</p>	<p>◆보건원 복지원 환경원</p> <p>보건원장 다행 보건부장 무령 복지원장 경봉 복지부장 진송 복지국장 덕성 환경원장 정각 환경부장 무공</p>	<p>◆중앙포교원</p> <p>포교원장 벽해 포교부장 각림 포교국장 정진</p>	<p>◆국제불교문화원 및 국제포교원</p> <p>문화원장 진환 문화국장 해룡 국제포교원장 진덕 국제포교부장 진제</p>	<p>◆사 정 원</p> <p>사정원장 진원 사정부장 서원 호법국장 진각 감찰국장 진철</p>	<p>◆중앙위원회</p> <p>법규위원장 해원 법고시위원장 원명</p>	<p>◆중앙선원</p> <p>선원장 도륜 선원부장 진안</p>	<p>◆교구총무원</p> <p>경주교구원장 진봉 광주교구원장 해관 부산교구원장 원정 서울교구원장 진보 인천교구원장 정각 포항교구원장 성범 강원교구원장 해국 전남교구원장 진철</p>
----------------------------------------------------------------------------------------------------------------------------------------------------------------------------------------------------------------------	-----------------------------------------	------------------------------------------------------------------------------------------------------	----------------------------------------------------	-----------------------------------------------------------------------------	---------------------------------------------------------------	--------------------------------------------	---------------------------------------	---------------------------------------------------------------------------------------------------------------------------

◆총 무 원 : 전남 강진군 음천면 개산리 391번지 음 천 사 / 전화 061)433-2233, 3233 (종무소), 팩스 061)433-2425